

KWDI

해외통신

2020년 6월 2차 (2020.6.16 ~ 6.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독일, 코로나 위기 속 가정폭력 방지 위해 상담 지원 강화

채혜원 독일통신원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로 독일 내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 라이프니츠경제조사연구소(RWI)와 뮌헨 공대(TUM) 연구팀이 18세에서 65세 사이 약 3,8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격리조치로 인해 가정에서 더 많은 신체폭력과 성폭력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매체 '메르쿠어(Merkur.de)'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엄격한 격리조치 기간 구타와 같은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격리 기간 집에 머물러야 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발생률은 더 높았다. 격리 기간 집에만 머물러야 했던 응답자 중 7.5%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10.5%는 아동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우, 여성에 대한 신체폭력 발생률은 8.4%, 아동에 대한 폭력은 9.8%였다.
- 무엇보다 가정폭력에 영향을 끼친 것은 파트너가 우울하거나 불안한 경우였다. 이 경우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9.7%, 어린이에 대한 신체폭력 발생률은 14.3%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파트너의 우울과 불안이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악화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에르푸르트 대학(Universität Erfurt)에서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위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심리적 스트레스와 일자리 상실로 인한 가정 내 더 많은 싸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다.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놔다.

참고자료

- NummergegenKummer (2020), <https://www.nummergegenkummer.de/> (접속일 : 2020.06.26.)
- JugendNotmail (2020), <https://www.jugendnotmail.de/> (접속일 : 2020.06.26.)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0.03.31.), "Kinder und Jugendliche vor Missbrauch und Gewalt schütz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und-jugendliche-vor-missbrauch-und-gewalt-schuetzen/154288> (접속일:2020.06.24.)
- Merkur.de (2020.06.02.), "Studie: Mehr häusliche Gewalt in Quarantäne", <https://www.merkur.de/welt/studie-haeusliche-gewalt-in-quarantaene-und-finanzieller-not-zr-13784385.html?fbclid=IwAR3n3E1KJldT34PiYILP17-e1GT8-ts4jC6J3BLhuSfzXrcCYwl9PmXuq4> (접속일 : 2020.06.24.)

첫째, ‘청소년 긴급 지원 메일(JugendNotmail)’지원을 확대했다.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이메일이나 그룹 채팅(jugendnotmail.de) 등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이뤄지며, 심리학자와 사회교육자 등 150여 명의 전문가가 자원봉사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긴급 지원 메일’은 우울증, 자해, 폭력, 따돌림, 학대 및 가족 문제 등 약 13가지 주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 상담 메일은 2001년부터 비영리협회 ‘jungundjetzt e.V.’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달 최대 1,00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두 번째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상담 전화(116111)와 부모를 위한 상담 전화(0800 111 0550), 이주 배경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www.jmd4you.de)을 총괄하는 ‘Nummer gegen Kummer’ 상담 서비스가 확장된다. 이 전화상담 서비스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및 관련 교육자들을 위해 독일에서 신속하게 상담과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화상담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등은 익명으로 자신의 문제와 걱정 등에 전문가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무료다. 독일 아동보호협회와 기타 지역복지기관과 연계된 이 상담 전화 서비스는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독일 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AG)이 지원한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족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격리조치가 엄격하게 시행 2020년 3월에는 ‘Nummer gegen Kummer’ 상담 건수가 2020년 2월에 비해 21% 증가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채팅 상담도 26%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온라인 채팅과 전화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sofahopper.de’에 온라인 상담자와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사이 라이브 채팅을 통해 제공해왔던 상담을 당분간 저녁 시간 이후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여러 상담 기관에서도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임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아동복지청과 독립 상담 기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 논의하기 위해 마인츠 사회 교육학 연구소와 국제 교육 지원 협회, 힐데스하임(Hildesheim) 대학교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가족 상담에 관한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설정 중이다. 이와 함께 보육원과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육자가 추가 교육을 받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제원조 예산 확대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국제원조 정책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9일 캐나다 국제개발부(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여성의 안전한 피임, 낙태 서비스에 접근한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 제약하고 있다면서 캐나다가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연방 정부는 올해 8,900,000(약 79억 원) 캐나다 달러의 국제원조 재원을 편성하여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와 재생산 건강 서비스(safe abortions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한다. 이 자금 가운데 490만 달러(약 43억 6천만 원)는 37개국에 피임과 낙태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인 마리 스톱스 인터네셔널(Marie Stopes International)에 배정될 것이며, 2백만 달러(약 17억 8천 만 원)가 UN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기금 (United Nations trust fund on violence against women to help combat gender-based violence)으로 지출될 것이다. 이밖에도 이 재원은 안전한 낙태, 피임, 낙태 후 케어,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의료 지원,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외진 곳에서 고립되어 사는 소녀들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쓰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또한 추가적으로 2백만 달러를 세계 각국 정부들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옹호하고 피임법을 확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인 Ipas에 지원할 것이라 한다. 국제개발부 장관은 이날 자원 편성의 목적을 밝히면서 “캐나다는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도 여성의 재생산 성 건강과 권리(SRHR: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의 증진에 여전히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 자원 편성을 통해 증명할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믿는다” 라 밝혔다.

한편 캐나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안전한 낙태 서비스 접근권, 산후조리와 다른 재생산권 문제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성 건강과 권리 행동 캐나다(Action Canada for Sexual Health & Rights)의 로라 네이다트(Laura Neidhart)는 국제원조 자원 발표와 관련한 매체와의 뉴스인터뷰에서 의약품과 피임 용품의 조달 및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클리닉들 또한 대거 휴업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캐나다와 세계 각지에서의 여성의 재생산권 옹호 활동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제약이 단순히 공중보건 때문에 아님을 지적했다. 미국에서 성 건강과 권리 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아이오와, 오하이오, 알칸자스, 루이지애나, 테네시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빌미 삼아 다양한 수단으로 낙태를 금지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교묘하게 이용(manipulating the crisis)”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이라는 핑계로 여성들에게 안전한 낙태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이 여성들을 위험한 낙태 시술로 여성을 내모는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네이다트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시국에서도 트뤼도 행정부가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케어를 조명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 밝혔다.

참고자료

- CTV News (2020.06.09),
“Feds commit \$8.9M in foreign aid for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mid COVID-19”,
<https://www.ctvnews.ca/politics/feds-commit-8-9m-in-foreign-aid-for-reproductive-health-services-amid-covid-19-1.4976634>
(접속일 : 2020.06.19.)
- Newswire (2020.06.19),
“Refugee girls face a triple crisis with COVID-19”,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refugee-girls-face-a-triple-crisis-with-covid-19-860465828.html>
(접속일 : 2020.6.19.)
- Plan International Canada (2020.06.),
“Close to Contagion: The Impacts of COVID-19 on displaced and refugee girls and young women”,
https://plancanada.ca/file/planv4_files/covid-19-refugees-2.pdf
(접속일 : 2020.6.19.)

플랜 인터내셔널 캐나다(Plan International Canada)가 2020년 6월 공개한 보고서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난민 소녀들이 현재 3중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주(displacement),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어린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위험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분쟁지역, 고립지역,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 관련 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사회서비스 자원이 세계 각지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미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이 코로나 19 범유행으로 인해 증폭되어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19 사태로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국제원조 정책에서 페미니스트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캐나다는 여성건강을 위한 국제원조에 1억 4천만 달러의 재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절반이 낙태와 재생산 건강 서비스 관련 예산이었다. 하지만 이에 비하면 올해 발표한 8백 9십만 달러는 너무나 축소된 규모이다. 비판가들은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는 단순히 캐나다 정부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